

완주군, 풍수해저감 '으뜸'

국민안전처 평가서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완주군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재해저감에서 전국 으뜸의 실력을 보였다.

군은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 2016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저감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국가재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위 계획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올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관심도 및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의 수립·추진

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전문가 서류심사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이뤄진 평가에서 완주군이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7월 국민안전처로부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승인받은 후 타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군은 아름답고 안전한 소하천 가꾸기 사업의 경우,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올 6월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인센티브 5억원 등 2014년부터 3년 연속으로 4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 형태의 재해예방사업비 지원과 함께 2018년 재해예방사업비 지원시 최우선 지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됐다.

박성일 군수는 "앞으로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근거로, 지속적인 재해예방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안전 완주 1번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인 거주기반 마련 혼신

신규마을·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사업 본격화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거주기반 조성을 위한 신규(전원)마을과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 공정지구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50가구 규모 / 11월말일 기준, 공정을 93%)은 2013년도 농업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것으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80여 억 원을 투입해(국비 16억 원, 군비 64억 원)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을 조성했다.

군에 따르면 공정지구 신규마을은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 예비 입주자 확보를 완료했으며, 2017년 1월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안성 공정지구 신규마을 바로 옆 부지에 총 13억여 원을 투입해 예비 귀농인 거주 공간 10동과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영농, 농기계, 소양교육 등을 이수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 마을만들기사업소 김기욱 소장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정착지원이 인구감소, 고령화로 침체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배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으로 내년에 귀농인의 집 2개소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나무은행 재활용시스템 활용 '효과 톡톡'

수목 190여그루 재활용해 2억여원 예산절감

완주군은 올해 '나무은행'을 운영해 2억여원을 절감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무은행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도

로신설 및 확장 등으로 인해 분별 없이 베어지는 수목과 주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활용 가

치가 있는 수목을 선별해 녹지공간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완주산부 공공주택 조성공사 사업으로 폐기처분될 수목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형이 양호하고 이식가능한 왕벚나무 60여주를 선별한 뒤, 고산면 민정강 수변생태공원에 이식해 녹지공간을 확대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올해 5종, 총 191주의 수목을 도로변 가로수, 공원경관 조성에 재활용한 것으로 주당 평균 가격은 100만원을 상회한다.

최우식 산림축산과장은 "예산절감, 한정된 부지이용 등의 측면에서 나무은행 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식과정에서 녹화가 필요한 곳에 식재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진안군-산림조합 '땀감 나누기'

선도산림경영단지 내 부산물로 13세대에 전달

진안군과 산림조합은 13일 용담면 감동마을 등 9개 마을 일원에 서 어려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람의 땀감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사람의 땀감 나누기 행사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 땀감으로 제공해 난방비 절감 등의 보탬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주된 사업자인 용담면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13세대의 지원대상자들에게 세대 당 2~4톤씩 총 30톤의 난방

용 땀감이 전달됐다. 진안군은 '사람의 땀감 나누기'를 통해 산림사업 이후 방치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자연경관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를 앞두고 난방비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버려지는 잡목들이 훈훈한 사람의 땀감으로 다시 태어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위해 추진하는 선도산림경영단지의 경영 활성화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노래하며 즐기며!'

무주군, 무풍·부남면 노래교실 운영

무주군에서는 농한기 주민들을 위한 자치 프로그램이 인기다. 무풍면 주민자치센터(2층)에서는 12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남면에서도 12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주민자치센터(2층)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노래교실은 겨울철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어울려 노래하는 시간이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김 모(무풍면, 68세) 할머니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 친구들과 어울려 왔다"며 "마을회관에서 우두커니 있다가 오며 가며 시간 보내고 노래도 하며 많이 웃으니까 이 시간이 정말 기뻐진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돌리사

진안서 용담호 물관리 토론회

용담호 물관리 광역협의회(공동대표 이충국, 김재승)는 13일 '용담호 수변구역 토지관리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광역협의회 박형열 이사, 진안군 맑은물사업소 송용호 수질보전담당, 금강유역환경청 전동하 토지매수팀장, 용담댐관리단 박대진, 이환귀 차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효율적인 용담호 물관리를 위한 수질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후 주안호보전협의회 조규현 이사 및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이진희 사무처장을 비롯한 광역협의회 임원 40여명이 참석해 용담호의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토크관계향상 '굿프렌즈' 실시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서정분)는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무주중학교 1학년 79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토크관계향상'을 위한 '굿프렌즈 해피 투게더'를 진행했다.

이번에 진행한 "굿프렌즈"는 영화치료 프로그램으로 영화(어벤저스)를 매개로 '나와 유사한 캐릭터와 친구'의 특징을 찾아 맞는 캐릭터를 찾아보는 모둠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여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의 모습을 알아보고 '나를 인정하며, 모둠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했다.

토크관계향상을 위한 '굿프렌즈'는 학교 내외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폭력에 예방하고 치유적 접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상호 발전적 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인성발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정분 소장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자주 접하게 하고, 공동체제 수행으로 서로의 강점을 찾아주고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 사회문제인 왕따 등의 예방활동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어린이 불조심 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13일 어린이 불조심 작품공모전 입작을 선정하여 소방서에 전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예방 필요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10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25일간 무주군·진안군·정수군 초등학교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3개 부문(포스터, 포어, 글짓기) 공모로 실시되었다.

특히 공모전에는 30개(초등학교 16, 유치부 14) 대상이 참여하여 1,270작품이 모집되는 열띤 경쟁속에 진행되었다.

작품심사는 미술협회와 문인협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포스터부문 대상 무주중앙초등학교 박주미(4학년 1반)의 5명을 포함한 246명의 수상자를 발표하였으며, 수상 작품은 무진장소방서에 전시 되었다.

/정수=고관호 기자

장계파출소, 공·폐가 일제점검

장계파출소(소장 김영신)는 여성안전 및 청소년 탈선예방,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공·폐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일탈우려가 있는 공·폐가를 대상으로 수색활동을 실시했으며, 특히 오랫동안 인적이 없는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공·폐가가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을 앞둔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김영신 장계파출소장은 "앞으로도 주·야간을 불분하고 관내 공·폐가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탈선과 여성범죄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관내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산입과
063-430-2951